

“단 한 방울 석유라도 더 확보 절실... ‘전쟁추경’ 빠르게 설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내각과 참모진을 향해 “사실상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할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모든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중한 자세로 가자달라”며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방 지원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하면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 경제에 덧붙여 투자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추경 편성에 있어서도 이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했다.

원유와 원자재에 대한 철저한 수급 대책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환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장기적 수급 관리 필요성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추경, 취약계층·소상공인 피해 줄이고 자금 순환될 수 있도록 편성”

“지방경제 침체 전체 문제... 전분야 걸쳐 지방우선원칙 철저히 준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단 한 방울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선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측으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데 대해 “매우 큰 성과로 생각된다”며 “표창이라도 하나 헤드필까”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 비행기에서 피해를 입거나 그럴까 걱정했는데 수고하셨다. 고생했지만 큰 성과 있어서 다행”이라며 “UAE 정부 협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는 스토킹 신고 사건 전수조사와 조속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 긴급 요청에도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찰은)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보호하는 게 정부 책임이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혼잡이 크게 예측되다 보니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한 제약들이 가해지며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다”며 “양자가 잘 조화될 수 있게 질서 유지도 제대로 하되, 국민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서 인천공항 입국장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한다”며 “법무부가 어제부터 특별 입국 심사 대책을 실시 중이라고 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집중적이고 신속한 투입이 있어야겠다. 이번 기회에 공항 입국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19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서남권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영록 후보측 제공

김영록 “전남 서부권, 글로벌 에너지·반도체·해양 허브로” “광역교통망 구축해 40분 생활권 실현”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전남 서부권을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19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서부권을 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의 에너지·반도체·해양 산업 중심지로 조성해 세계적인 미래 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대규모 발전단지를 확대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지산지소 에너지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반도체 생산시설(FAB)을 유치하고, 나주·무안·영암 일대를 화합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AI(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가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조선업 등 기존 산업에는 AI 실증센터를 도입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무안국제공항과 목포항·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전남형 트램과 초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40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어 “K-푸드와 농생명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 2030년 수출 확대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자유와 미시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벨트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및 고급 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원격의료 기반의 의료관광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제수목비엔날레 아트센터와 역사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문화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남 서부권을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수 기자

민형배 “100원 전기, 검증된 모델”... 김영록 ‘비현실론’ 반박

“전남광주전력공사, 법·제도 이미 갖춰... 결국 실행 의지·결단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광주 광산구) 의원이 19일 자신의 공약인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와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에 “전남의 실제 전력 현실을 외면한 평가”라며 정면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7일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TV합동토론회에서 김영록 후보가 민 의원의 공약을 두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민 의원은 ‘생산한 전기를 버리는

무능 행정, 이제 끝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00원 전기 비현실성’ 주장에 대해 “단순한 가격구호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계통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 모델로, 전문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미 실현가능한 산업 전력모델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요금 불가’ 주장에 대해서도 “전국 요금을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RE100 산단에 적용되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기반 공급 구조”라며 “글로벌 기업

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공사 설립 불가’ 주장에 대해서도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과 전남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지금은 불가능한 시기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은 시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전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 대체기관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국망은 한전이, 지역산업

연결은 전력공사가 담당하는 분담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한전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투자와 장기계약 기반 수익모델로, 오히려 전기를 생산해 놓고도 쓰지 못해 버리는 지금의 구조가 더 큰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민주당 등 6개 정당 만찬 우원식 “국힘도 개헌 논의 동참해 주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6개 정당 원내대표와의 연석회의를 열고 “당초 오전에 연석회의 개최를 계획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개헌관련 논의를 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라며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해 온 과거를 반복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의 국민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에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월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를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

택”이라고 했다. 그는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을 모아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년 가까이 방치된 국민투표법의 위헌적 공백을 해소했고 절차적 통로를 완성했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는 국민의 힘도 답할 차례”라며 “역사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부탁 말씀 드린다”고 했다.

서양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이후 가장 먼저 개헌특위 구성과 제7공화국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며 “방향과 명분이 하나로 잘 모아지고 있다. 개헌을 위한 토대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번 지

방선거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여야간 이견 없는 것에 대해 먼저 단계적으로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시적 개헌 논의를 위한 개헌 특위 상설화 ▲국민 참여 개헌절차법 통과 등을 요청했다.

전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힘의 윤 어게인 단절, 절운 등에 아직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계엄 요건의 엄격화를 주장해 다시는 그런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논의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평가되는 데에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있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에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개헌을 막는 일을 벌인다면 또 한 번 내란 상황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새로운 결단의 차원으로 과오를 반성하는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스1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제49회 보성다향대추제

2026. 5. 1. (일) - 5. 5.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차문화행사, 체험행사, 전시/공연, 부대행사 등

- 제49회 보성군민의 날**
5. 1. (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
기념식, 군민의상 시상
-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2. (월) - 5. 4. (수)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추모제
- 제22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 2. (월) - 5. 4. (수)
용치면 용반리 일림산 일원
-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
5. 5. (화)
한국차문화공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2. (월)
보성공설운동장
출.입.3, 10km, 5km

주최: 영농조합법인보성차생산지조합
주관: 보성다향대추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발전추진위원회,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